

-(으)ㄹ 줄 알다/모르다

~할 줄 알다 / ~할 줄 모르다

배워서 익힌 기술을 나타냅니다. 미래 관형형에 ‘방법’을 뜻하는 명사 줄을 더해 만들며, 같은 형태에 전혀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어 누구나 한 번쯤 헷갈립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 줄 알다	하다 → 할 줄 알아요
자음으로 끝남	-을 줄 알다	읽다 → 읽을 줄 알아요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 줄 알아요
할 줄 모름	-(으)ㄹ 줄 모르다	할 줄 몰라요
띄어쓰기	줄은 독립된 단어	할 줄 알아요 — 할줄(×)
과거 = 예상	-(으)ㄹ 줄 알았다	비가 올 줄 알았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ㄹ 탈락형을 포함한 표준 규칙을 따릅니다. 만들다 → 만들 줄 알아요. 줄은 명사이므로 독립된 단어로 띄어 씁니다.

이 표현은 특히 방법을 아는 것— 수영, 운전, 요리, 악기 연주, 외국어처럼 배워서 익힌 기술을 나타냅니다. 가능성이나 허락을 말할 때는 대신 -(으)ㄹ 수 있다가 씁니다.

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. 과거에서 -(으)ㄹ 줄 알았다는 보통 ‘할 줄 알았다(기술)’라는 뜻이 아닙니다.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으로, 대개 잘못된 예상을 나타냅니다: 비가 올 줄 알았어요 —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(그런데 오지 않았다).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이 의미가 훨씬 자주 쓰입니다.

■ 예문

- 1 저는 수영할 줄 알아요.
- 2 한국 음식을 만들 줄 알아요?
- 3 아직 운전할 줄 몰라요.
- 4 한글은 읽을 줄 아는데 뜻은 몰라요.
- 5 오늘 비가 올 줄 알았어요.
- 6 그 사람이 올 줄 몰랐어요.

■ 비교

-(으)ㄹ 수 있다
수 있다는 능력과 상황 모두에 쓰이지만, 줄 알다는 배워서 익힌 기술에만 씁니다. ‘내일 갈 수 있다’처럼 상황상 가능성을 말할 때는 수 있다만 쓸 수 있습니다.
수영할 줄 알아요. (수영하는 법을 안다) / 내일 갈 수 있어요. (내일 가는 것이 가능하다)

못
못은 특정한 시도가 막혔음을 나타내고, 줄 모르다는 그 기술을 익힌 적이 없음을 나타냅니다.
수영할 줄 몰라요. (배운 적이 없다) / 오늘은 수영 못 해요. (오늘은 할 수 없다)

예상을 나타내는 -(으)ㄹ 줄 알았다
과거형은 거의 항상 ‘그럴 거라고 생각했다’는 뜻입니다. 과거에 할 줄 알았다는 것을 말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를 쓰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.
비가 올 줄 알았어요. (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) / 그때는 수영할 수 있었어요. (그때는 수영할 수 있었다)

■ 주의

- ✗ 한국 음식을 만들 **줄** 알아요.
○ 한국 음식을 만들 **줄** 알아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수 있다, 만들 거예요와 같습니다.
- ✗ 저는 수영할 **줄** 있어요.
○ 저는 수영할 **줄** 알아요.
줄은 알다·모르다와 짝을 이루고 있다와는 쓰지 않습니다. 수는 있다·없다와 짝을 이룹니다. 두 구문을 구별하십시오.
- ✗ 내일 **갈** 줄 알아요. — ‘내일 갈 수 있다’는 뜻으로 쓴 경우(×)
○ 내일 **갈** 수 있어요.
어딘가에 가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기술이 아닙니다. 줄 알다는 익혀야 하는 능력에만 쓰십시오.